

오프모임 · 2023년 12월 8일 · 13명

아침 그리고 저녁

마침표를 따라 읽은 삶과 죽음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들고 12월 금요일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따라 읽는 법에서 시작해 태어남의 긴장,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늙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마중 나와 줄 사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	두 번 읽어야 보이는 문장
태어남	첫 장의 긴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남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마중	마지막에 누가 나와 줄까

욘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오프모임에서 모였습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얇지만 오래 머물게 되는 이 책을 들고 세 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쉼표와 마침표를 따라 읽기

이 책은 쉼표와 마침표를 유심히 보며 읽으면 보이는 게 훨씬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쉼표로 길게 이어지던 문장 끝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그 자리가 왜 거기일까. 작가가 보물찾기를 숨겨 둔 것처럼 첫 문장부터 의미가 있다는 분도 있었어요.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마침표를 찾으려다 그냥 읽혀 버리는 순간이 있고, 한 번 더 읽어야 "왜 이렇게 썼을까"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마침표만으로 쓴 글이 좋은 글이라는 말과 견주어 보기도 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처럼 허무함이 떠올랐다는 분도 있었어요.

태어남, 첫 장의 긴장

첫 장의 출산 장면이 가장 긴장됐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배경을 모르고 읽으니 "혹시 누가 죽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고, 무사히 태어났구나 싶어 안도했다는 것. 태어나는 순간이 어쩌면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하는 말도 나왔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동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남편의 무력감, 기다림과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오래 준비해 온 엄마와 그 순간을 맞는 아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위급한 순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는 정답 없이 각자의 가치관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책을 읽으며 남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 객관적인 죽음을 보며 조금씩 준비하게 된다는 것. 그래도 모든 죽음이 평화롭지는 않고,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 어느 순간 울컥 올라올 때가 있다는 말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남겨질 사람에게 "내가 없어도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남겨진다면 그렇게 쉽게 행복해지긴 어렵겠다는 이야기,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이 "아프지 않게 잘 있을게, 기다릴게"라고 말하는 그림 사연에 눈물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누군가 "무섭지 않다"고 이끌어 준다면 조금은 편안하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말은 오히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말, 하늘에 화를 내더라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늙는다는 것

삶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는 질문에 "늙는 것"이라는 답이 나왔고, 반대로 철없던 시절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도 있었어요.

아이가 나보다 20~3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한 순간 걱정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이야기, 아이의 길은 결국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해 줄 때는 고맙고 안 해 줄 때는 달라지는 마음, 주고받음이 없으면 존재가 흐려지는 것 같은 마음까지, 늙어 가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 함께 이야기되었어요.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

천국에는 아픔도 계급도 부도 없다는데,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만드는 걸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읽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것. "삶 속의 죽음과 죽음 속의 삶, 당신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여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흔한 소재로 어떻게 노벨문학상을 받았을까 하는 물음도 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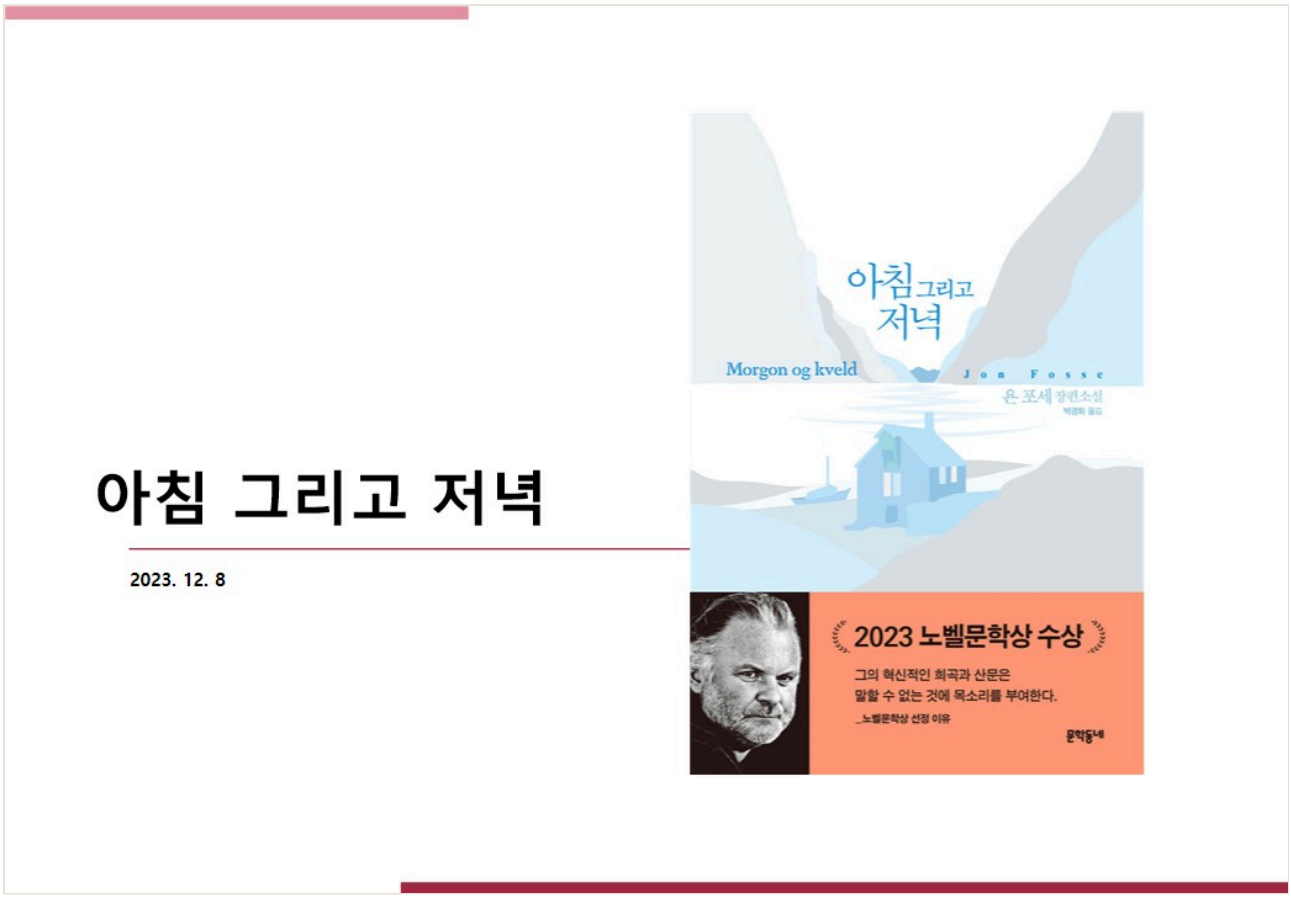
마지막 날, 누가 마중 나올까

영화나 책을 보면 떠나는 순간 누군가 마중 나와 "괜찮다, 어서 와" 하고 맞아 줍니다. 그런 상상이 있어야 사람이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리운 분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떠나기 전에 마중 나와 줄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에 충실하자. 그 한마디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날 진행 자료

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9장입니다. 내용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



1 / 9

MORGON OG KVELD

아침 그리고 저녁



아침 :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 흘러간 삶
저녁 : 이제 막 다가오는 죽음

삶과
죽음의
원형을 담은
액자



아이가 우는 건 좋은거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아이가 이제 곧 나온다, 아이는 추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
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가, 그의 때가 되면,
스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표 . 쉼표 ,

확실한 것은, 그가 올라이이고 어부이며 마르타와 결혼했고
요한네스의 아들이며 이제, 언제라도 조그만 사내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
이가 할아버지처럼 요한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신이 존재하기는 하겠지, 올라이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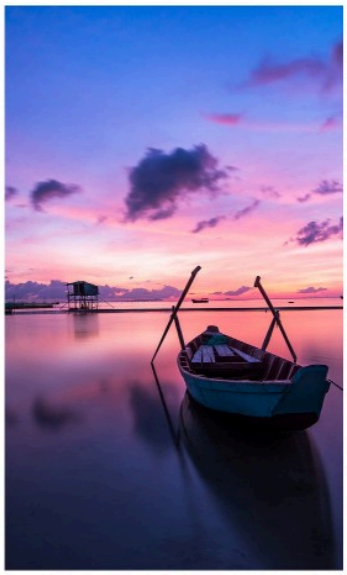
공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문장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는 일과 일상







바다가 더이상 자네를 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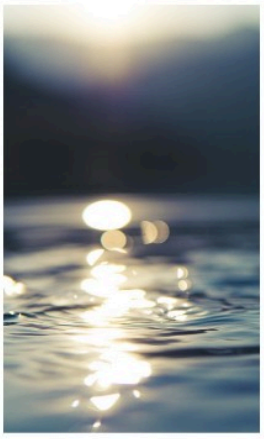
루어가 가라앉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일 미터쯤 아래 계속 멈춰 있다는 걸,
아무 이유도 없이

영시 늙는다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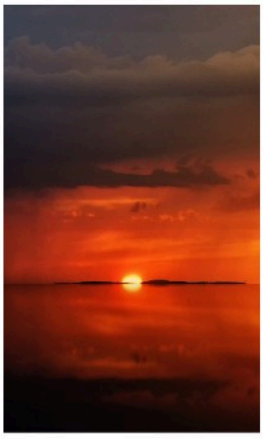
고현혜 이야기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그래도 닥칠 일은 닥치는 법이야,
이제 죽었네 요한네스, 삶과의 연결을 끊어야 하니,
자네가 사랑하는 건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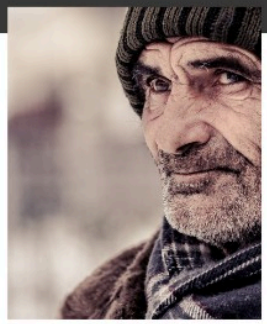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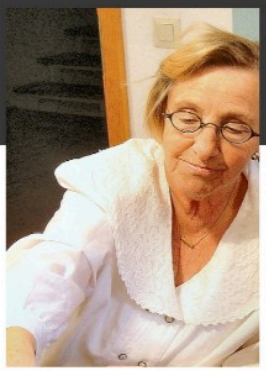
자네도 이제 죽었네

저토록 머나먼 죽음



주인공 요한네스

-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매일 똑같은 생각)
-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 그리 나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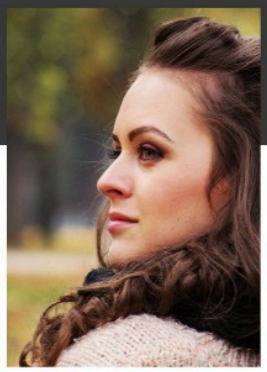
아내 에르나

-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
- 아직 살아 있다면, 그렇다면 신이 나서 집으로 갈 텐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군,



절친 페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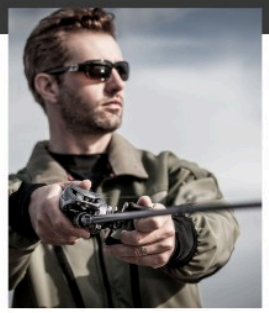
- 오랜 세월 서로의 머리를 잘라줌
- 자네가 저세상으로 가도록 도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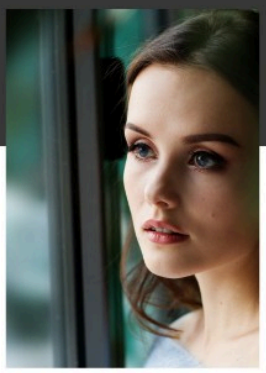
딸 싱네

- 가장 큰 의지처
- 거의 매일 그를 보러 온다
- 장을 보러 갈 때면 꼭 들러 살펴보고 전화도 자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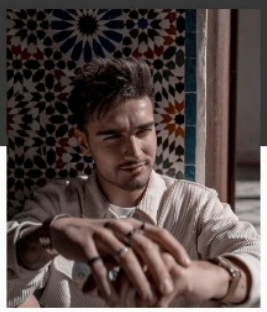
이토록 가까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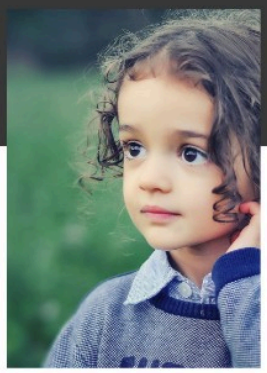
주인공 요한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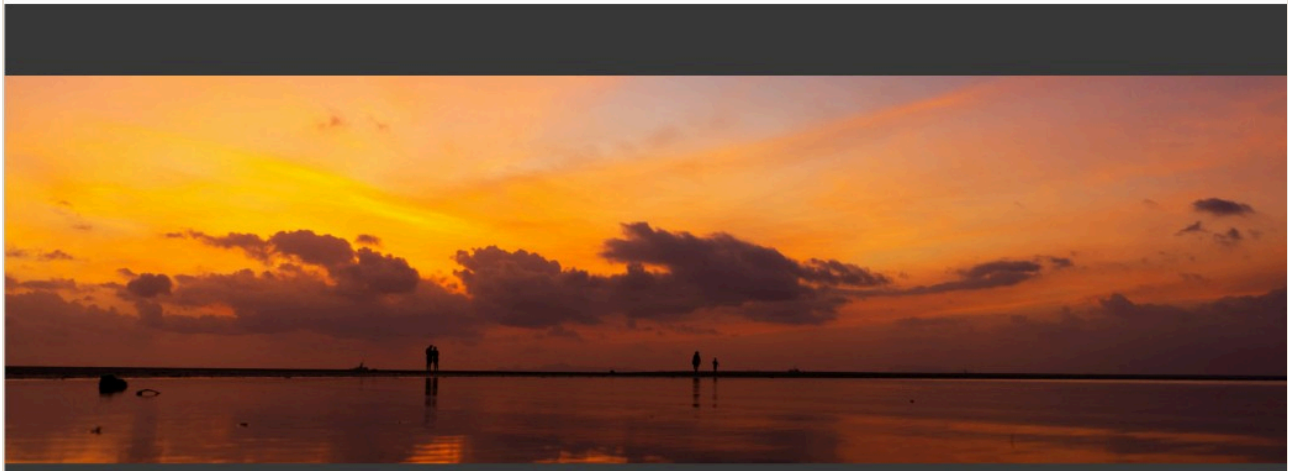
아내 에르나



절친 페테르



딸 싱네



삶과죽음

죽음을 통한 삶의 의미

'삶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
지금, 당신의 여정은 어떤가요?

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입니다.

- 다음 모임과 신청: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
- 이 책의 진행 자료: https://espada4897.github.io/espada/book-06ba9d0a.html